



국민이 지킨 역사
국민이 이끌 나라

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


기상청

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19. 3. 19.(화) 10:00 (총 8매) | | 보도시점 | 즉 시 | |
| 담당부서 | 대변인실 | 담당자 | 과장 사무관 | 임덕빈 오철규 | 전화번호 02-2181-0362 |

제36회 '기상기후사진전' 수상작 발표

- 대상에 김학수씨의 가야산 정상 소나기 사진
- 4월 1일(월)부터 4월 8일(월)까지 서울역에서 전시회 개최

- 기상청(청장 김종석)은 1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모한 '제36회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' 수상작을 선정, 발표했다.
 -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사진 4,148건, 타임랩스 57건 등 총 4,205점의 작품이 응모했으며, 이는 지난해(2,908점) 보다 44.6% 증가한 수치다.
- 대상(환경부장관상, 상금 500만원)에는 가야산에서 소나기 장면을 포착한 김학수씨의 작품이 선정되었으며, 금상(기상청장, 상금 200만원)은 지난 여름 폭염에 광화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신승희씨가 수상했다.
 - 이 밖에, △은상 1점과 △동상 2점 등 총 50점의 일반사진과 타임랩스 작품 3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.
- 수상작들은 4월 1일(월)부터 4월 8일(월)까지 서울역사 3층 광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.
 -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 전시 외에도 △크로마키 촬영 △눈꽃모양 만들기 △사진엽서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.

□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응모해 주신 기상사진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넘어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가치있는 자료며, 앞으로도 기상기후사진전과 같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기상기후 역사를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제36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자 명단 (주요 작품)
2. 제36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주요 작품 및 설명

□ 붙임 1. 제36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자 명단 (주요 작품)

| 구분 | 작품 수 | 훈격 | 상금 | 성명 | 작품명 | |
|----------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일반 사진 | 대상 | 1점 | 환경부장관상 | 500만원 | 김학수 | 소나기 |
| | 금상 | 1점 | 기상청장상 | 200만원 | 신승희 | 폭염 탈출 |
| | 은상 | 1점 | | 100만원 | 신준식 | A village where Christmas falls |
| | 동상 | 2점 | | 각 50만원 | 고용석 | 낮게 깔린 미세먼지 |
| | | | | | 홍영인 | 용담댐의 물안개 |
| | 입선 | 45점 | 상장 없음 | 각 10만원 | 문서옥 등 | 고향 풍경 외 44점 |
| 소계 | | 50점 | | | | |
| 타임 랩스 | 특별상 | 1점 | 기상청장상 | 100만원 | 홍정석 | 광주 소나기 |
| | 입선 | 2점 | 상장 없음 | 각 50만원 | 손창현 | 부산을 덮쳐오는 해무 |
| | | | | | 이용 | 구름 위의 산책 한라산 |
| 계 | | 3점 | | | | |

□ 붙임 2. 제36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주요 작품 및 설명

○ 대상 (소나기-김학수)



| | |
|-------|---|
| 작가 설명 | 가야산 정상에서 먹구름 사이로 소나기가 내리는 모습 |
| 기상 해석 | 발달한 대류운의 강수 세포(cell)에서 소나기가 내리며 소나기 줄기가 구름 아래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옆으로 밀리는 모습 |

○ 금상 (폭염탈출-신승희)



| | |
|-------|---|
| 작가 설명 | 2018년 8월 초 서울 광화문에 놀러간 아이들이 폭염 속에 물놀이를 하면서도 지치고 힘들어 하는 모습 |
| 기상 해석 | 2018년 8월 2일, 서울이 관측 이래 일최고기온(39.6°C)을 기록한 날의 풍경 |

○ 은상 (A village where Christmas falls—신준식)

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작가 설명 | 2017년 12월 어느 새벽 한남동에 펼쳐진 동화 속 세계 |
| 기상 해석 | 2017년 12월 10일, 서울에는 4.3cm의 눈이 내림 |

○ 동상 (낮게 깔린 미세먼지-고용석)



| | |
|-------|---|
| 작가 설명 | 미세먼지가 깔린 대구도심을 산 위 높은 곳에서 바라본 모습 |
| 기상 해석 | 미세먼지로 누렇게 보이는 층과 푸른 하늘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남. 혼합층(대기경계층)의 꼭대기는 낮동안에 약 1.5km 고도에 이름 |

○ 동상 (용담댐의 물안개—홍영인)



| | |
|-------|--|
| 작가 설명 | 수몰 지역 실향민들의 그리움처럼 피어나는 물안개 (진안군 주천면 용담댐 인근) |
| 기상 해석 | 증발 안개(Evaporation fog) 따뜻한 수면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로 수증기가 증발하면서 생기는 현상 겨울, 가을, 봄에 큰 댐에서 물을 하류 방출할 때 나타남 |